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 그대로가 불성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②

수심결에서의 영성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은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고려시대 보조 국사의 저술인 <수심결(修心訣)> 강의를 열고 있다.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 원장 인경 스님이 '불교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체험을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 중인 특강은 대승불교에 기초한 간화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성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새로운 시사점을 전한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와 영성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은 매우 세속적이다. 경쟁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가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역기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현대사회는 병적인 상태라는 진단을 자주 듣는다. 이속에서 거룩함이나 청정함과 같은 영적 가치를 상실하여 버렸다.

그렇다 보니 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의가 요청된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웰빙, 안녕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곤 한다. 몸/마음의 건강이란 전통적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건강의 본질을 인간의 본성에서 그 근원적인 원천을 찾곤 한다. 이런 경우에 마음이란 단순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 이상의 어떤 거룩함, 평화로움, 깨어있음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말한다. 영성의 강조는 현대 사회를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현대 선불교에서 영성을 강조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스즈키 다이세츠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스즈키는 영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이란 용어와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신은 물질과 함께 짝을 이루는 이원적인 서구적 관점을 반영한다. 반면에 영성이란 분별이 없는 선(禪)적 직관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를 의미하지 않는 핵심된 체험이나 본질이다. 다이세츠는 영성을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려 했다. 영성을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고, 특히 선불교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는 서구사회에 불교의 선(Zen)을 전한 인물이다. 선은 곧 동북아의 영적 전통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선불교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대승기신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마음을 크게 생멸심(生滅

心)과 진여심(眞如心)을 구분한다. 생멸심은 미혹에 의해서 끊임없이 분별하여 고통을 발생시키는 일상의 세속적인 마음이라 면, 진여심은 외적인 환경에서 초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본래의 참되고, 한결같은 정정한 본래의 마음이다. 전자가 인연을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이라면, 후자는 인연을 따라서 한결같은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의 마음이다. 곧 진여심은 영적 본래의 마음으로, 생멸심은 일상의 세속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모두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본래적인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심결에서의 영성

보조국사의 <수심결>에서는 영성 혹은 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보조국사는 일단 우리의 삶이란 불타는 집처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해서는 부처를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처일까? 부처를 역사적인 인물로서 본다면, 우리는 먼 과거 BC5세기로 내려가야 한다. 앞으로 올 부처라면 먼 미래의 미륵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는 현재의 부처를 응당 말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 현재의 부처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구체적으로는 내적인 깨달음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함께 하기에 도 닦는 사람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초월적인 존재도 미래의 부처도 모두 관념이고 이상이다.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외적 모양일 뿐이다.

깨달음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본래부터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마음이 그대로 곧 부처인 까닭에, 보조국사는 다만 잘못된 인연만 따지면 즉시 그대로 한결같은 부처라고 말한다. 불성이 몸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아는 작용'이 그대로 성품, 곧 영

성이라고 말한다. 질문자는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해줄길 보조국사에게 요청한다. 이에 보조국사는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한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그런 까닭에 잘못된 생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서 고요하고, 외적 대상은 또한 본래 공하다. 이렇게 모든 현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 신통스런 알[靈知]이 어둡지 않다. 이렇게 텅 비어 고요하고[空寂] 신통스런 알의 마음이 그대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또한 이것이 과거·현재·미래[三世]의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히 전한 법인(法印)이다.

여기서 보면, 먼저 보조국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으로서 생멸심을 말한다.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이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마음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발생함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본래면목의 영성은 텅 비어 있어 고요하며, 그런 가운데 신통스러운 알이다. 이것이 불성이고, 진리의 도장(法印)이다.

이것을 선정과 지혜로서 다시 설명하면, 텅 비어 고요함이 마음의 바탕으로서 선정이라면, 신통스러운 알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지혜이다. 보조국사의 정혜결사는 새의 양 날개처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음을 강조하는데, 선정과 지혜는 자성, 곧 영성에 근거한다. 선정과 지혜는 인간의 근본적인 웰빙 상태이다. 선정이 없고 지혜만 있으면 산란함에 떨어지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선정은 어리석음에 떨어진다.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인간은 궁극적인 건강상태가 된다. 이것은 산란함과 어리석음의 결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불성이다.

정혜란 바로 공적영지(空寂靈知)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보조국사의 텍스트에서는 영성이란 '텅 비어 있음[空]', '고요함[寂]', '신통함[靈]'과 '깨어있는 지혜로서의 알[知]'으로 정의한다. 서구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영성에 대한 정의에는 신성함, 거룩함, 연민, 경이로움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차분한 서술내용이다. 서구의 정의가 보다 놀람의 정서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일어나는 놀람, 감동, 환희의 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볼 때,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일상성과 영성

그러면 일상의 심리현상과 영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양자는 서로 분명한 경계성을 가지면서 구분된다. 이점은 사회적으로는 일반 사회와 출가 승가의 관계처럼,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예측되거나 아니면 긴장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일상성과 영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이다. 보조의 <수심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성과 영성은 서로 별개 아니라, 하나이다. 서로 다르지 않는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점은 사회적 관점이나 심리학적 측면보다는 아마도 인격으로서 실천적인 관점을 말한다. 사회적 혹은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양자가 구분되지만, 영적인 실천의 입장에서는 양자는 하나로 경험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성체험, 영적체험, 자성체험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점은 건강이나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보조국사는 바라제 존자와 이견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점을 잘 표현하여 준다.

보조 "우리의 삶은 불타는 집, 고통 벗어나려면 부처 찾으라"
돈오는 세속심·영적작용 인지
점수는 영적경험 통한 인식 정화

옛날에 이견왕(異見王)이 바라제존자(婆羅提尊者)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성품을 보는 것(見性)이 부처입니까. 스승께서는 성품(性)을 보았습니까? 저는 부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性在作用).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지금 작용하는 데에 나타나고 있는데 왕께서는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까. 나에게는 그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까? 왕께서 작용할 것 같으면 성품 아닌 것이 없습니까. 작용하지 않으면 성품(性)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여덟 곳입니다. 그 여덟 곳으로 나타나는 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내(胎)에 있으면 태아(身)가 되고, 태어나 세상으로 나오면 사람이 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이야기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다리에 있으면 달립니다. 두루 나타나면 오래



순천 송광사에 있는 보조국사 사리탑

알 같이 많은 세계를 다 포함하고 거두어 들이면 하나의 작은 티끌에도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부처의 성품임을 알고 모르는 자는 정혼(精混)이라 부릅니다. 왕은 듣고서 마음이 곧 열리어 깨달았다.

이것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작용이 그대로 불성이고, 영성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일반 세속적인 관점과 영적인 체험은 분명하게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된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거룩함이나 청정함을 경험하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한, 비범함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경험을 나누지 못한다. 세속적 관점에서 대상을 눈으로 볼

때,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곳에는 항상 판단의 왜곡과 갈망의 투사가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닦는 비결로서 <수심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돈오(頓悟)란 세속적인 마음을 그대로 영적 작용임을 깨닫는 놀라운 경험이라면, 점수(漸修)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왜곡하는 인식의 필터를 정화하는 현실의 작용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몸/마음/영성은 하나로 통합이 된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법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민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 포교원 등로서 행정성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법음·법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중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산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